

조선문학사

고대중세부분

허휘훈 채미화 저



연변대학출판사

조선문학사

(고대중세부분)

허휘훈 채미화 저

연변대학출판사

〈书名〉 朝鲜文学史
(古代中世部分)

作者：许辉勋 蔡美花

责任编辑：宋昌洙

封面设计：金胜铉

出版发行：延边大学出版社出版发行

社址：吉林省延吉市公园路105号 邮编：133002

网址：<http://www.eabook.com> (东亚书局)

印刷：延边新华印刷有限责任公司

开本：850×1168毫米 1/32

印张：13.125印张 字数：271千字

印数：2701—4700

版次：2003年1月第2版

印次：2003年1月第2次印刷

ISBN 7-5634-1039-2/I·92 (民)

定价：18.00元

차 례

제1장 원시시기의 문학.....	(1)
제1절 조선의 원시문화와 문학예술의 발생	(1)
제2절 원시가요와 신화.....	(6)
1. 원시가요와 《구지가》	(6)
2. 신화	(8)
제2장 고대시기의 문학	(13)
제1절 고대사회의 역사문화와 문학발전 개관	(13)
제2절 건국신화	(17)
제3절 고대서정가요	(26)
제3장 삼국~통일신라시기의 문학	(29)
제1절 봉건문화의 형성과 중세초기문학의 발전	(29)
제2절 설화문학	(34)
제3절 구전가요	(48)
제4절 향가의 발생발전	(53)
제5절 중세산문의 형성발전	(64)
제6절 한시의 초기발전과 최치원	(72)
1. 삼국~통일신라시기 한시발전개관	(72)
2. 최치원과 그의 한시	(76)
제4장 고려시기의 문학	(85)
제1절 고려시기의 역사문화와 문학발전	

개황	(85)
제2절 고려시기의 향가	(92)
제3절 고려전기의 한시와 정지상	(97)
제4절 고려전기의 산문	(104)
1. 수이전체	(104)
2. 년대기와 인물전기	(107)
제5절 《해좌7현》과 고려후기의 한시문학 ..	(113)
1. 《해좌7현》의 한시문학	(113)
2. 고려후기 한시문학	(119)
제6절 리규보와 리제현의 문학	(130)
1. 리규보와 그의 문학	(130)
2. 리제현과 그의 문학	(148)
제7절 고려후기의 산문문학	(163)
1. 력사산문	(163)
2. 패설과 의전체	(169)
제8절 고려후기의 국문시가	(181)
1. 고려가요	(181)
2. 경기체가	(192)
3. 시조	(195)
제5장 리조전기의 문학	(202)
제1절 사회문화적환경과 문학개관	(202)
1. 사회문화적환경	(202)
2. 문학개관	(204)
제2절 국문시가의 발전	(205)
1. 악장과 경기체가	(206)

2. 시조문학의 흥성	(210)
3. 가사의 발생과 정철의 창작	(219)
제3절 한시문학의 발전	(226)
1. 사장과파의 문학과 처사문학	(227)
2. 현실비판의 한시	(232)
제4절 패설의 성행과 소설의 대두	(245)
1. 패설문학의 활발한 창작	(245)
2. 소설의 발생과 김시습의 《금오신화》···	(248)
3. 우화소설의 발전과 립제의 《서옥설》···	(255)
제6장 리조중기의 문학	(260)
제1절 사회문화적환경과 문학개관	(260)
제2절 국문시가의 활발한 창작	(263)
1. 《은일시가》, 《강호시가》	(264)
2. 박인로의 창작과 《로계가사》·····	(271)
3. 윤선도의 창작	(277)
제3절 한시문학의 창작	(282)
제4절 소설문학의 발전	(291)
1. 반침략애국투쟁주제의 소설과 《임진록》	(292)
2. 사회비판, 개혁지향을 반영한 소설과 《홍길동전》	(296)
3. 애정문리, 가정문리적 문제를 제기한 소설과 《운영전》, 《창선감의록》 ···	(302)
4. 김만중과 국문장편소설	(305)
제7장 리조후기의 문학	(315)

제1절	사회문화적환경과 문학개관	(315)
제2절	국문시가의 다양한 발전	(319)
	1. 평민시인들의 진출과 시조	(319)
	2. 가사문학의 새로운 발전	(328)
제3절	한시문학의 발전과 변모	(333)
	1. 정통한시문학의 변모	(333)
	2. 위항시인들의 한시문학	(343)
	3. 김립과 그의 한시	(352)
제4절	소설문학의 새로운 발전	(359)
	1. 민간국문소설	(359)
	(1) 《장화홍련전》과 《콩쥐팍쥐》	(360)
	(2) 《심청전》	(362)
	(3) 《홍부전》	(364)
	(4) 《토끼전》	(367)
	(5) 《춘향전》	(370)
	2. 일반 개인창작소설	(376)
	(1) 장편소설 《쌍천기보》	(379)
	(2) 장편소설 《옥루몽》	(382)
제5절	실학과문학	(389)
	1. 실학과문학의 특성	(389)
	2. 《사가지인》	(393)
	3. 박지원과 그의 소설창작	(401)
	4. 정약용과 그의 시가창작	(407)

제1장 원시시기의 문학

제1절 조선의 원시문화와 문학예술의 발생

조선사람의 선조들은 아득히 오랜 선사시대부터 자기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일반적으로 인류역사는 인간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며 매개 문화의 시초는 그 창조자인 사람의 기원과 함께 시작된다. 조선에서 사람의 첫 생활자취는 원시시대의 첫시기인 구석기시대부터 찾아볼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조사자료에 의하면 구석기시대유적은 조선반도 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랜것은 평안남도 상원군에서 발견된 검은모루유적으로서 그것은 대략 60~40만년전부터 조선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증시해주고있다.

조선에서 살았던 구석기인들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든 타제석기를 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하여 삶을 영위해나갔다. 자연을 정복하는 힘이 매우 미약하였던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살면서 소박한 원시공동체적관계를 형성하고있었다.

구석기인들은 수십만년동안의 집단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물질문화를 창조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을뿐만아니라 정신문화를 개척하는데서도 초보적인 경험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사유와 언어의 발생, 생활실천을 통한 각종 숙련과 경험의 축적,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유치하나마 원시신앙, 원시예술과 같은것들을 싹틔우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구석기시대유적들에서 발견된 고고학적발굴자료들을 통하여 추정해볼수 있다.

이러하면 2만여년전의것으로 알려진 충청남도 공주군의 석장리유적에서 개, 곰, 메돼지, 새, 자라, 물고기 등을 형상한 돌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그것들은 사냥을 위해서나 신변의 보호를 위하여 주술의 힘에 의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만들어진것으로 인정되고있다. 또한 그것들은 비록 실용적목적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거기에서 형상에 대한 초보적인 표상과 그것을 유치하게나마 표현하려는 사상(寫像)적요소를 엿볼수 있다. 이것은 2만여년전 구석기인들속에서 원시신앙과 원시예술이 발생되고있었다는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겨난 조선의 구석기시대예술문화에서 그 면모를 비교적 뚜렷하게 알수 있는것은 상술한것과 같은 조형예술품들이다. 그런데 구석기인들이 수십만년전의 원인단계, 10여만년전의 고인단계를 거쳐 3만여년전의

신인단계에 와서 신체구조의 진화를 완성하여 현대사람과 같은 몸구조와 뇌수의 기능을 갖추었고 그 발성기관이 유절음을 낼수 있게끔 발달되었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구석기시대의 예술문화는 조형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에 상응한 기타 예술형태도 동반시켰으리라 짐작된다. 즉 구석기인들은 사냥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 대상물의 형체들을 조각하거나 그려놓았고 그 효과를 기원하여 소리와 동작을 동반한 일정한 행사도 벌렸을 것이다. 여기서 조각이나 그림에 담긴 사연을 노래나 말로 풀이하는것이 문학의 시초였을 것이다.

이렇게 첫자욱을 떼기 시작한 조선의 원시문화는 기원전 6천년경에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신석기인들은 여전히 석기를 기본적인 로동도구로 썼으나 투박한 타제석기를 정교한 마제석기로 개량하였으며 또한 도자기와 같은 생활도구도 새로 만들어내어 생활을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꾸려나갔다. 그리고 원시적이거나 농업과 목축업을 시작하여 채집경제로부터 생산경제로의 전환을 이룩하였다.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활동의 확대 및 그에 따른 사회적관계의 강화는 신석기인들로 하여금 앞선 시기의 자연적인 결합에 의한 원시무리보다 훨씬 견고한 씨족공동체를 형성케 하였다. 그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 점차 조선사람의 고유한 인종적특징과 문화적공동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적지 않은 고고학적자료들과 민속학적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의 신

석기인은 동북아세아계통에 속하는 인종류형의 하나로서 그들은 생활풍습과 문화심리적면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고있었다.

신석기시대의 물질문화와 사회생활의 새로운 발전은 신석기인들의 정신생활도 한걸음 더 발전시켰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문화발전의 여러 면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제석기와 도자기는 신석기시대를 특징짓는 문화현상이다. 마제석기는 석기에 공예적특성을 부여한것이였다. 즉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가 주로 로동도구로서의 쓸모의 견지에서만 가공되였다면 신석기시대의 마제석기는 쓸모를 높이는데서 효과적이였을뿐만 아니라 또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품을 들여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신석기시대의 유적들에서 나온 마제석기들에는 타제석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맵시를 잘 보장한것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들은 석기라기보다 석공예품을 련상시킨다. 이같은 마제석기의 공예적특성은 신석기인들의 보다 발전된 미적표현능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도자기는 석기에 비해 특수한 의의를 갖는 문화적 창조물이다. 왜냐하면 석기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돌의 형태를 변화시켜 새로운 모양으로 가공한것이라면 도자기는 기성형태가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를 창안해낸것이 기때문이다. 그러기에 도자기는 처음부터 제작자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구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였다. 이것은 신석기인들에게서 창조적상상력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신석기인들의 정신생활의 발전은 원시신앙과도 많이 관련되고 있었다. 신석기시대에는 원시인들의 정신적표현력과 상상력의 발달에 의하여 앞선 시기에 싹트기 시작한 원시신앙이 무속신앙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그 초보적인 체계를 갖추어나갔다. 무속행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노래와 춤으로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그 목적은 신을 불러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복락을 구하고 재앙을 예방하거나 물리치려는데 있다. 이러한 현세기복(現世祈福)의 성격을 띤 무속행사가 그 당시에는 불가결의 사회활동으로 진행되어오는 과정에 조선원시인들은 노래와 춤을 생활의 중요한 한부분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그것이 점차 전통적인 생활기풍으로 되었다. 이처럼 조선사람이 가무를 즐기고 또 그에 능한 문화전통은 무속가무에 그 시초적원형이 있다고 할수 있다.

무속신앙은 원시가무의 발전과 밀접히 련관될뿐만 아니라 또한 신화발생의 중요한 문화적조건으로도 되었다. 발생학적으로 볼 때 구석기시대에는 신화적요소는 나타나어도 아직 신화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신석기시대와 와서 무속문화가 기틀이 잡히면서 그 의례를 주축하던 무속전문가——무당에 의하여 앞선 시기부터 전승되어오던 신화적요소들이 일정한 형태로 조합되어 신화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조선의 원시문학은 구석기시대에 싹트기 시작하여 신석기시대에는 그 존재를 뚜렷이 나타냈으며 그 기본형태는 가요와 신화였다고 할수 있다. 그것들은 원

시인들의 공동체생활과 관련되어 집단적성격을 띠고 또한 원시문화의 미숙성으로 하여 아직 독자적인 분야를 이루지 못한채 다른 문화형태들과의 미분화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원시예술문화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었다.

제2절 원시가요와 신화

1. 원시가요와 《구지가》

원시가요는 가장 일찍 나타난 문학의 원초적형태로서 그것은 시가문학의 시초로 된다.

원시가요는 다른 예술형태들보다도 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것으로서 생산적물동으로부터 생겨났다. 원시인들은 로동과정에서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박자에 따라 몸을 움직이였고 또한 그에 맞추어 소리도 내면서 로동에서 체험한 심리적감수와 감정정서를 토로함으로써 생리적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이전시키려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원시인들은 음악적인 절주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한 절주를 즐기게 되었으며 그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내게 되었다.

이처럼 원시인들의 로동생활에 바탕을 두고 발생한 원시가요는 무속활동을 비롯한 여러 의식행사에 동반되면서 직접적인 생산활동과 점차 분리되어 독자적인 가무

제1장 원시시기의 문학

예술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원시인들속에서 생활을 즐기고 생산활동을 추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삼국지》 등 옛문헌에 따르면 조선의 원시고대종족들은 경상적으로 한곳에 모여 노래와 춤으로 즐기었으며 길가는 사람들까지도 종일 노래를 불렀다 한다. 또한 《후한서》를 비롯한 옛기록들은 조선의 노래와 춤이 예로부터 아름다웠고 일찍 기원전 2천년경에 중국에 널리 알려졌다고 전하고있다. 그리고 고고학적자료에 의하면 신석기시대유적인 함경북도 선봉군 서포항유적에서 선물성악기로 인정되는 흙피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것들은 조선원시인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며 일찍부터 많은 가요를 창작하였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그런데 조선의 원시가요는 거의다 없어지고 《구지가》 한수가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 가요는 아직 나라도 임금도 없던 먼 옛날에 남해바다가 가야지방에 살던 원시주민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우두머리를 맞이하는 행사에서 부른것이라 한다.

가요에서 주목되는것은 그 노래이름도 거북의 노래로 되어있고 그 내용도 거북과 관련되어있는것이다. 그

리고 그 유래설화에서 사람들이 모인 장소도 거북모양으로 생긴 구지봉이라는 산봉우리이다. 이것은 가요가 거북을 신성시하던 가야종족들의 원시신앙과 련관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요에는 또한 노래자체를 신과 통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중요한 행사에 주술의 하나로 리용하던 원시인들의 무술(巫術)적관념도 체현되어있다.

그리고 가요는 비록 그 내용이 모호하지만 일정한 생활감정과 지향을 함축하여 4개의 시행으로 갈라놓고있다는 점에서 가요적특성을 가진다.

《구지가》는 현전하는 조선 최초의 가요작품으로서 조선민족의 가요창조의 력사적유구성과 그 원초적인 모습을 더듬어보는데서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2. 신 화

신화는 서사(敍事)문학의 원초적형태로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원시인들의 유치한 사고와 그에 기초한 환상에 의하여 꾸며진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는 조선의 신화유산으로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가 있다.

① 문헌신화. 이것은 옛날문헌들에 수록되어 전해오는 신화들을 말한다. 신화를 수록한 조선의 주요한 옛 문헌들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

제1장 원시시기의 문학

국리상국집》,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람》 등이 있다.

문헌신화는 그 대부분이 고대국가의 창건 또는 개국시조의 가계를 신화적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야기로 되어있다. 이러한 신화들을 건국신화라 한다. 《단군신화》, 《해모수신화》, 《고주몽신화》, 《박혁거세신화》, 《김수로신화》, 《삼성혈신화》 등이 이에 속한다.

② 구전신화. 이것은 구비적방법으로 전승되어온 신화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주요한 구전신화로는 무당들이 부르는 서사무가를 들수 있다.

서사무가는 무당들이 굿을 할 때 구송(口誦)하는 신가(神歌)의 일종이다. 그것은 일정한 인물과 사건에 의한 일관된 이야기를 통하여 우주,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의 근원을 밝히는것으로 되어있다. 이를테면 함경도의 《창세가》, 제주도의 《초감제》 등은 우주의 기원을 서술하고 있고 강원도, 경상도의 《시준굿》(일명 당곰애기)은 인간의 탄생을 서술하고있으며 전라도의 《칠성풀이》는 성신(星辰)의 기원을, 각 지방에 다 분포되어있는 《성주굿》과 제주도의 《세경본풀이》는 생활기술의 발생을 서술하고있다. 지금까지 수집된 서사무가는 100여편에 달한다. 이 서사무가를 학계에서는 무속신화라 한다.

이처럼 조선의 신화는 문헌신화와 구전신화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에는 건국신화가, 후자에는 무속신화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다.

조선의 신화발전과정을 보면 국가출현이전에 무속신화가 형성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국가출현이후에 건국신화가 대두하였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무속신화는 조선신화의 원형이고 건국신화는 그 분파형으로 된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아직 건국을 내용으로 하지 않은 천지개벽에 관한 무속신화를 살펴보고 건국신화는 고대국가지기로 미루기로 한다.

현전하는 무속신화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백여편 있는데 창세신화적 이야기로서 대표적인것은 함경도의 《창세가》와 동해안지역의 《당곰애기》를 들수 있다.

《창세가》는 천지를 갈라놓은 창세신이 일월을 조정하여 성신을 만들고 지상에 내려와 사람이 생겨나게 하고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밝혀내여 인간세상을 이룩한 뒤 다른 한 신과 세상차지내기를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이 신화의 내용에서 우선 특징적인것은 주인공의 역할이다. 이 신화의 주인공은 세계의 절대적인 창조자라기보다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천지질서의 조정자라 할수 있다. 즉 그는 하늘땅이 생길 때 탄생하여 다만 맞붙어있던 천지를 기둥을 세워 갈라놓고 인간도 그가 직접 만든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원하여 거기서 떨어져내려온 벌레들에서 인간이 생겨나게 한다. 이것은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 신을 존재의 근원자체로 간주하는것과는 달리 신을 존재의 운행을 주재하는것으로 신성시하는 무속적 사고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